딱나에서의 4 월의 선교편지

안녕하세요. 페루의 장인성 선교사입니다.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믿음의 동역자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곳 페루는 더운 여름이 끝나고 이제는 오후 4 시이후면 벌써 기온이 떨어지며 겨울을 알리는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Zoom 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전에는 생각치 못했던 공간을 뛰어 넘어 멀리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우리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역사하셨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암송발표

지난 연말에는 성경 암송발표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5 장, 로마서 8 장, 히브리서 11 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한장을 모두 암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5 명의 리더들이 참석하여 암송을 하였는데, 그 중 Juan Diego 는 직장때문에 암송발표날에 멀리 리마에 있었지만 Zoom 을 통하여 눈을 가리면서까지 암송발표에 참석하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CAMINO Y AUN
FUERE VIEJO NO S
APARTARA DE ÉL
Pollo

Zoom Meeting
Speaker View
I.E.B.M. Palabra de Vida
Jacob Chang
alicia ap
Juan Diego Villanueva Arotinco
Mariela Tito
Alejandro Percy
Roxana Nina
Renzo Fernandez SC
Diana
Karen G
Fiorela
Mute
Stop Video
Participants
Chat
Share Screen
Record
Reactions
Leave
Type here to search
7:09 PM
12/8/2020

성경 통독

작년 11 월말부터 코로나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리더들과 함께 아침 7 시~8 시, 저녁 9 시~ 10 시 중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매일 1 시간씩 Zoom 을 통하여 함께 성경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벌써 5 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일독이 끝났고, 지난달부터 신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리더들이 직장과 학업으로 인하여 전보다는 많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경을 매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삶

가정교회를 하시는 홍선교사님 교회에서 말씀의 삶을 부탁받아 12 주 동안 서로에게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Alfredo 목사님과 홍선교사님이 그동안 훈련을 잘 시켜주셔서 어려움 없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주일학교 선생님 몇분이 이번 공부로 배운 지도와 역사로 아이들에게 살아 있는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Alfredo 목사님과 홍선교사님과 함께 준비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여기서 3 명씩 3 팀이 1 년에 2 ~ 3 번 성경 읽기에 서명하고 매일 1 시간씩 성경읽기를 시작했습니다. 6 월에 다른 2 팀을 더 인도해 달라는 러브콜을 받아 기도하며 준비하고있습니다. 이중에는 몇분이 자신도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자”(말씀을 삶)를 훈련을 더 받아 자신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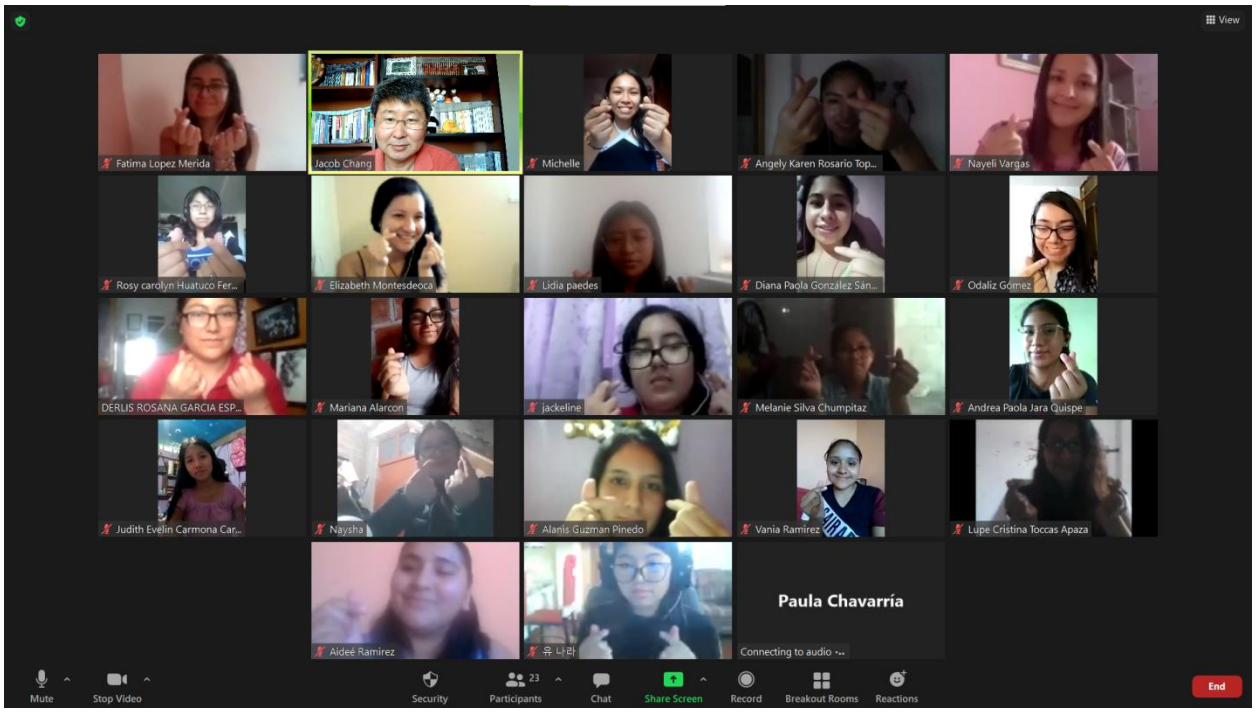
가르치고 싶다는 제자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현지인이 가르치면 얼마나 저보다 더 잘 가르치겠습니까? 그들의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 구약을 전혀 알고 싶지 않는 이들에게 좀 더 눈높이를 낮추어 지도와 이야기 식으로, 중요한 흐름은 계속 반복과 암송으로 가르쳤더니 많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루어 질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현지 말씀의삶 3 번째 팀인 딱나의 Palabra de Vida 교인들과 하고있습니다. 처음에 12 명으로 시작하여 6 주가 지난 현재는 2 명만 남았습니다. 훈련이 전혀 없었던 교인들이라, 공부를 시작한지 2 주가 되어 숙제를 전혀 하지 않거나 호기심에 참석한 현지인들은 결국 다 떠나갔고, 지금은 2 명과 함께 저자신을 훈련 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배우는 사람이 많고 호응이 있어야 신이나서 잘 가르칠턴데, 이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2 분을 20 명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 번에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팀들의 특색에 맞게 가르쳐 조금이라도 구약 역사의 흐름의 맥을, 특히 성경을 좋아하고 그들이 성경을 읽게 하는것이 제가 가르치는 목적이기때문입니다.

한국어 수업



코로나로 인하여 현지의 청년들을 만날 수 없기에 지난 2 월부터 Zoom 으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여 현재 30 여명의 남미의 청년들(페루, 멕시코,볼리비아,아르헨티나,칠레)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Zoom 이기에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남미의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3 월말부터 한국에 수업의 학생들과 매주 토요일에 풍성한 삶 성경공부반을 열어, 학생들 7 명이 성경공부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풍성한 삶(Vida Abundante) 공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잠언 16: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번 Covid 19 을 통해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의 소망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통하여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전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는 없지만 전에는 감히 생각치도 못했던 Zoom 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Covid 19 이라는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장인성/에스더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2. 풍성한 삶과 말씀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3. 9 월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베키가 미국에서 살 집과 대학진학,그리고 필요한 재정을 위해
4.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